

H

02

현대중공업그룹 웹진 매거진 H

NO.035

INSIDE

Feature	“지속가능한 회사 만들자” ESG로 미래 준비하는 기업들	**03**
People	고품질 부품으로 세계 시장을 사로잡다 - 현대코어모션 A/M영업팀	**09**
News	그룹사 주요 소식	**12**
Heritage	국내 대표 스마트 에너지 기업 ‘현대일렉트릭’의 시작 - 1977.2	**15**
Special	창업자 특집 - 제 2화 I ‘현대’의 태동, 그 집념과 도전의 역사	**17**
	창업자 기고문 전재 - 세상의 변화가 여전히 멋있다	**21**

STORY

Trend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홈술 문화	**24**
Health	드르렁~~컥, 방치하면 위험한 수면무호흡증	**27**
Culture	요알못, K사우가 간다 - 바지락 술찜	**29**
Story +	사우의 글 - 내 인생의 영화관	**31**
	잡학사전 - 암흑 속, 예술의 빛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영화관’	**32**
Hstagram	눈온 풍경을 소개합니다	**33**
Quiz	2월호 퀴즈	**34**

더 보기 웹진 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이달의 그룹사 풍경 현대오일뱅크가 올해 대산공장에 도입 예정인 무인순찰차의 모습
그림 양승용 I 일러스트레이터

INSIDE

Feature
People
News
Heritage
Special

“지속가능한 회사 만들자”

ESG로 미래 준비하는 기업들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매거진 H는 최근 글로벌 경영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ESG 경영에 대해 1, 2월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ESG가 무엇이고, 왜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어떤 정책들을 도입하고 있는지, 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였고, 이달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분야별 국내 ESG 관련 정책과 더불어 국내 주요 기업들의 ESG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011년 파타고니아가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광고

'이 재킷을 사지 마세요(Don't buy this jacket)'

2011년 11월 25일, 미국 아웃도어 패션 브랜드 '파타고니아'가 뉴욕타임스에 게재한 광고 헤드라인 카피다. 미국 최대의 쇼핑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 날, 놀랍게도 자사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광고를 한 것.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안에서 우리는 'ESG경영'을 찾아야 한다.

오래전부터 의류산업은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산업으로 지목받아 왔다. 의류의 생산, 판매, 구매, 관리,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은 석유산업에 버금가는 공해로 꼽히기도 한다. 여기에 최신 유행을 반영한 디자인, 저렴한 가격, 빠른 상품회전율을 내세운 패스트 패션(fast fashion)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손쉽게 더 많은 옷을 사고 버리게 됐다. 특히 직물 섬유의 60% 이상이 합성 물질이며, 섬유 폐기물의 약 85%가 소각되거나 매립된다는 점을 미루어보면, 이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은 패스트 패션을 멀리하기 시작했다. 패스트 패션 트렌드를 이끌어온 H&M, 자라 등이 큰 위기를 맞이했고, 포에버 21은 파산하기에 이르렀다. 뉴욕타임즈 등 미국 언론은 패스트 패션의 종말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를 쏟아내기도 했다.

파격적인 광고의 주인공 파타고니아는 패스트 패션의 대척점에 있는 패션 브랜드다. '우리의 터전, 지구를 되살리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사명(使命)을 바탕으로 친환경 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이 브랜드의 마케팅은 매우 이상하다. 재킷 한 벌을 만드는 데 135리터의 물이 소비되고, 운반과정에서 약 9㎏의 탄소가 배출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린다. 꼭 필요한 옷이 아니라면 사지 말라 조언한다. 또, 의류 수선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고쳐 입고, 물려 입는 것을 권장한다. 심지어 구글에서 이 기업의 제품을 검색하면 중고물품 거래 플랫폼에 중고품이 있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두고 위선적이라거나 고도의 마케팅 상술이라며 평가 절하하는 목소리도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파타고니아의 철학을 지지했고, 곧 열렬한 팬이 되었다. '우리 제품을 사지 말라'는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파타고니아는 매해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양립할 수 없다고 믿었던 사업적 성공과 환경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 모두를 실현한 것이다.

이제는 소비자들도 제품을 구매할 때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시대가 됐다. 앞서 설명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노동문제 등과 관련된 사회 분야나 기업의 지배구조까지 총망라해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최근 컨설팅 전문업체인 맥킨지 앤 컴퍼니(McKinsey&Company)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66%가 제품 구매 시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우리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비재무적 기준인 'ESG'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ESG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됐다. 세계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으며 '착한 기업(Good Company)'만이 살아남는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우리 정부와 국회도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 관련 법 제·개정을 서두르며 ESG 정책에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환경(E) | 친(親)환경을 넘어 필(必)환경으로

환경 정책과 관련, 최근 눈에 띄는 큰 변화 중 하나는 기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다. 환경오염을 일으킨 기업에 대한 처벌 기준이 미흡했던 과거와 달리, 문제의 책임을 기업에 보다 직접적으로 묻겠다는 것.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환경부가 지난 2020년 11월 발표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는 것은 사상 최대 과징금으로, 이는 기업이 경영상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규모다. 기업이 낮은 수준의 과징금 제재를 악용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방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Environmental - 환경 분야 주요 법안

①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0. 11. 27 시행)

* 측정자료 조작 통한 특정유해물질 배출 행위 및 고의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 행위시 매출액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②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0. 4. 3 시행)

*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확대

③ 대기환경보전법 개정(2021. 1. 1 시행)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 검증 체계 구축

* 배출허용기준 초과 배출시 배출량 농도에 따라 부과금 산정기준 규정
* 측정대행업자 측정결과 고의 누락 시 사업주 등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

④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2020. 5. 27 시행)

*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 대상에 공장 및 교통기관 배출 소음·진동 관리기준 추가
* 환경훼손이나 자연생태계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날 우려가 있을시 환경부장관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 재검토 통보
* 과징금 체납 시 강제징수 절차 규정

지난해 7월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수립, '탄소중립'을 지향하고 경제기반을 저탄소 친환경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는 글로벌 ESG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탄소중립은 탄소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계해 순배출량이 제로(0)가 되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부는 올해 내에 탄소중립을 위한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가칭 '탄소종합정보연구센터'를 구축해 탄소중립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기로 했다.

국내 주요기업들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에너지 효율화를 통한 탄소 배출 최소화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고로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공정에 성공적으로 적용했다. 동종 업계에서 요청하면 해당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철강업계는 그간 환경단체 등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문제 해결을 요구받아왔다.

GS칼텍스 역시 친환경 경영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GS칼텍스의 친환경 경영은 에너지효율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4월 여수공장 가동 연료인 저유황 중유(LSFO)를 전량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한 것이 대표적이다. GS칼텍스는 이번 연료 교체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 이상 감축하고 미세먼지 유발 물질도 30% 이상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 전경

우리 그룹사인 현대오일뱅크는 지난해 연말,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30% 감축한다는 '탄소중립 그린성장' 전략을 발표했다. 2019년 678만 톤에 달했던 탄소배출량을 2050년까지 499만 톤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다. 현대오일뱅크는 현재 국내 연구기관, 협력업체와 공동 연구를 통해 공장 가동 중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탄산칼슘과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올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상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한 예상 감축량은 연간 54만 톤이다.

또 2024년까지 현재 보유 중인 3기의 중유보일러를 LNG 보일러로 교체하기로 하는 등 공장 운영도 친환경 방식으로 변경한다. 지난 1월에는 4,000억 규모의 녹색채권을 발행, 조달 자금을 탈황설비, 온실가스 저감 시설 등 친환경 관련 투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온실가스관리시스템(HGMS)을 구축·운영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응하고 있다. 공장 내 고효율 설비 도입을 통해 에너지를 절감하고, 폐기물 소각시설 및 풍력발전기 등을 통해 발생한 재생에너지를 활용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화학물질 등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가상 시운전 솔루션 개발을 통해 선박 시운전에서 발행하는 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인 것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현대중공업은 올해 1월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및 미래 선박 개발, 건조기술 개발,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최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수소, 암모니아 등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선박 및 미래 첨단 스마트십,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이중연료추진선의 고도화에 나서는 등 친환경 선박 건조와 시설투자로 ESG경영 기반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해 5월에도 업계 최초로 산업은행과 총 4,800억 규모의 그린론을 체결하는 등 친환경 기술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왔다.

사회(S) |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ESG의 사회(Social) 분야는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보건, 공급망 및 소비자 관계, 인권 문제, 제품의 품질과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망라한다. 최근 정부는 사회 부문에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기준을 반영한 노조법 개정과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하도급법 개정도 그중 하나다. 그러나 노동관련 법률은 아직 경영계와 노동계의 견해차가 커 개정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Social - 사회 분야 주요 법안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2022. 1. 8 시행)

*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부과

②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020. 1. 16 시행)

* 도급 범위 확대에 따른 원청 책임 강화
*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의무 신설
* 작업중지 제도의 확대 적용
*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처벌 강화

반면 산업안전은 최근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사항이다.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이 제·개정되면서 기업의 안전관리 책임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법이 시행되는 1년 뒤부터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대표이사나 안전담당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을 살거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해당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손해배상액 역시 손해액의 5배 이하로 대폭 상향됐다.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도 원청의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 역시 과거보다 더 심도 있게 안전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2월 위험 작업을 원점에서 재조사하고 3년간 1조 원을 투자하는 등 고강도 안전관리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제철소의 위험·노후설비를 전수조사하고 설비 위험도에 따라 다중 안전방호장치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위험설비 수동밸브자동화와 더불어 안전관리 CCTV를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등 안전설비 보강에도 힘쓴다. 안전관리요원도 기존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증원하고 사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 안전방재 개선단'을 운영한다. 개선단은 수시 현장순찰을 통해 작업표준과 실제작업의 차이를 점검해 개선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력사 안전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안전 미준수 관련 상시 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 더불어 안전기술대학을 설립해 협력사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을 진행하고, 제철소 공정 위험관리 전문가 300명을 육성해 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역량도 키우기로 했다.

현대건설은 '산업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정해 안전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하고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산업안전관리 강화방안은 안전인력 운영 혁신, 안전비용 투자 확대, 스마트 안전기술 확대, 안전의식 혁신의 4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현장별 인력 운영에서 벗어나 본사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확립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외부 안전관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안전 관리역량을 증대

한다. 또한, 현장에 부임하는 직책자의 안전 자격증 취득을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1,000명의 안전 전문가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현대건설은 최적의 안전한 현장 구현을 위해 안전관리비용 투자를 1,00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협력사 근로자의 안전·보건·위생을 위해 총 250억 원을 협력사 안전관리 투자에 지원하기도 했다.

현대중공업그룹도 지난해 6월 사업장의 안전시설 개선과 교육 관련 투자를 확대해 향후 3년간 총 3,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대중공업은 우선 국내 최고 수준의 외부 안전전문가를 영입했으며, 안전인증기관,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혁신 자문위원회' 확대 개편을 통해 중대재해 원인 및 대책 분석, 위험성평가, 화학물질관리 등 안전시스템 전반을 면밀히 점검했다. 또한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위험요소 발견 시 즉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전 작업자에게 '안전작업 요구권'을 부여했으며, 안전위기관리팀을 신설해 전 작업장에서 위험 요소에 대한 상시점검 및 진단을 수행해 문제점을 조기 발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력사들이 자체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했다. 이외에도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협력사를 포함, 고위험 직종에 근무하는 약 1만 1,000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교육프로그램도 올 3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은 올해 안전경영 목표를 '중대재해 제로(0)'와 '재해율 0.179 이하'로 설정했다. 재해율은 노동자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로 올해 목표치는 2020년 재해율인 0.215보다 17% 이상 낮은 수치다.

현대오일뱅크는 충남 대산공장에 자율주행 무인순찰차량과 지능형 CCTV 등 첨단 스마트팩토리 기술을 활용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율주행 무인순찰차량은 24시간 현대오일뱅크 공장을 돌며 화재를 감시한다. 이 무인차량은 유해가스 감지센서, 열화상 카메라 등을 탑재하고 있어,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통합관제센터에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대형사고 발생을 막는다.



▲현대오일뱅크가 업계 최초로 올해 도입 예정인 자율주행 무인순찰차

지능형 CCTV는 관제요원 없이 인공지능(AI)으로 CCTV 영상 내 작업자의 이상행동을 식별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현대오일뱅크는 유해가스가 남아있을 수 있는 고위험 작업공간에 지능형 CCTV를 우선 설치해 작업자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지배구조(G) | 경영 투명성 높이는 기업들

올해 초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발표한 전 세계 144개국에 대한 ESG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독일, 스위스 등과 함께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부여받았다. 특히 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 제도적 구조, 정책 신뢰성 및 효과성, 투명성 및 정보공개, 예산 관리 등 항목이 1등급을 획득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기업 지배구조 건전성은 ESG 경영의 한 축이다. 기업 지배구조(Governance)란 통상 기업 내부의 의사결정시스템, 이사회와 감사의 역할과 기능, 경영자와 주주와의 관계 등을 총칭한다. 넓게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좁게는 기업경영자가 이해관계자, 특히 주주의 이익을 위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감시·통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방법으로는 이사회 독립성 확보, 소액주주권한 강화, 회계감사제도 강화, 금융 감독체계 강화 등이 있다.

우리 정부도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맞는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확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정기국회에서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 권한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개정 상법은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돼 경제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법도 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사익편취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규제와 경영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



Governance - 지배구조 분야 주요 법안

① 상법 개정(2020. 12. 29 시행)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감사위원 분리선출: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 강화를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서는 주주총회에서 최소 1명의 후보자를 3% 의결권 제한을 적용하여 다른 후보자들과 분리하여 선임해야 함. 현행 상법상의 일괄선출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위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어 대주주의 선출에 대한 영향력 등이 제한됨.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2020. 5. 19 시행)

* 전속고발제 폐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어도 검찰이 가격·입찰 담합 등 수사·기소 가능
* 사익편취 규제 강화: 상장사의 총수 일가 지분율 20% 이상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도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적이다. 삼성그룹은 지난해 2월 그룹 윤리경영 감시기구인 준법감시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을 독립적으로 감시·통제하고, 계열사의 준법 의무 위반 위험이 높은 사안은 직접 검토해 회사 측에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7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계열사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활동하고 있으며, 회사 외부에 설치된 독립 기구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어 준법경영의 파수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SK그룹 역시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통해 그룹 컨트롤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에 거버넌스위원회를 신설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향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관계사의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가속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 그룹도 관련법 준수, 투명한 정보공개, 주주 친화 경영을 통해 지배구조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 현대중공업지주, 한국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 그룹 5개사는 지난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시행한 ESG 평가 지배구조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 이는 기업 지배구조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체계를 적절히 갖추고 있으며, 지배구조 리스크로 인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적음을 의미한다. 향후에도 ESG 경영 강화를 통해 더욱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주주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사후 대응'에서 '사전 대비'로

앞으로도 ESG 관련된 정부 정책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며, 고객, 투자자들을 비롯한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시선 역시 ESG를 더욱 주목할 것이다. 고무적인 부분은 기업들이 사후 반응이 아닌 사전 대비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업의 대처는 문제가 발생한 후 책임을 지는 '사후 반응'에 가까웠다. 그러나 지금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국제 기준의 가치를 추구하고자 하는 성향이 뚜렷해졌다. '사전 대비'를 더 중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우리 그룹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데 힘을 보태고 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올해 1월 그룹 ESG 조직을 구성,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사장을 최고지속가능경영책임자(CSO)로 선임하며 ESG경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곧 새로운 50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ESG는 분명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 그룹이 고객과 주주의 신뢰 속에서 지속가능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창의적인 지혜와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할 때다. Ⓗ

참고자료

1. 이본 쉬나드,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2020.4.30)
2. 로리 바시, 에드 프라운헤임 외 2명,
『굿 컴퍼니: 착한 회사가 세상을 바꾼다』(2012.11.22)
3. 맥킨지 앤 컴퍼니,
McKinsey New Age of the Consumer US Survey (2019)

고품질 부품으로 세계 시장을 사로잡다

현대코어모션 A/M영업팀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현대건설기계의 자회사인 현대코어모션은 지난 2019년 4월 설립된 기계부품 전문회사입니다. 현대코어모션은 건설장비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양산부품 사업과 완제품의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는 애프터마켓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웹진편집실은 최첨단 물류 운영시스템과 서비스로 고객만족을 실현하고 있는 현대코어모션 A/M(애프터마켓)영업팀을 만나보았습니다.



"최고 품질의 부품을
세계 어디든 적시에
제공하겠습니다."

| 전범륜 팀장



안녕하세요? 현대코어모션 A/M영업팀을 맡고 있는 전범륜 팀장입니다.

현대코어모션은 2019년 4월에 설립된 건설기계 및 산업차량 부품 전문회사로, 자체 설계 및 생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에 최상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팀은 미국, 벨기에, 중국, 브라질, 인도에 위치한 5개 해외법인 및 전세계 540여 딜러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센터로 세계 곳곳 부품공급 이상 無!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는 고객의 니즈에 맞춰 제품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특히 A/S 부품의 원활한 공급은 고객들이 굴착기, 휠로더 등 건설기계를 구매할 때 고려하는 주요 선택기준이 됩니다. 현대코어모션은 한국 음성 글로벌 물류센터와 UAE 두바이 물류센터, 미국 마이애미 물류센터 등 3곳의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거점삼아 제품의 배송 거리를 줄임으로써 공급의 적시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설립된 미국 마이애미 물류센터는 중남미 지역의 부품 배송기간을 대폭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류센터는 약 1만 8,837제곱피트 규모로, 멕시코, 콜롬비아, 칠레 등 27개국을 대상으로 굴착기, 휠로더용 A/S부품을 공급합니다.



▲지난해 10월 26일에 개장한 '마이애미 부품 물류센터'

전략적 공급망 분석·관리로 고객 만족 극대화

A/M영업팀이 관리하는 부품은 약 50만 종(품번 기준)에 달합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수많은 부품을 고객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의 트렌드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가 보유한 '공급망 관리(Supply Chain Management, SCM)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고객의 수요를 예측, 필요한 적정량의 부품만을 물류센터에 적치하고 있습니다. 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 BI) 시스템'을 활용해 지역별 주문 특성을 분석한 뒤 고객에게 꼭 맞는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 딜러들의 고객 소통과 주문 관리를 돕는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CRM) 포털, 창고관리시스템(Warehouse Management system, WMS)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프라 개선으로 전 세계 어디에나 부품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공급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버추얼 쇼룸' 등 온라인 마케팅도 활발

가상현실을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대코어모션은 지난해 12월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가상 부품 전시관인 '버추얼 쇼룸(Virtual Showroom)[1]'을 구축했습니다. 버추얼 쇼룸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영업환경과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새로운 방안입니다. 온라인으로 쇼룸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제품을 입체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어 기존의 전통적인 종이 리플렛보다 시각적으로 강화된 제품 소개가 가능해졌으며, 향후 매출 증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대코어모션은 다양한 부가 특수장치 개발 등 신사업 진출을 통해 영업 영역을 점차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새로운 건설장비 브레이커(Breaker)[2]를 개발했으며, 앞으로도 보유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희 A/M영업팀도 더 많은 고객들이 현대코어모션과 현대코어모션의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투 트랙 전략으로 고객 저변 확대

물론 극복해야할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 부품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양극화현상이란 고가를 지불하더라도 품질이 보장되는 '순정 부품'을 선택하는 고객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비순정 부품'을 선택하는 고객으로 시장이 양분되는 것으로, 특히 제품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 시장에 많이 나타납니다. 현대코어모션은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철저한 품질 관리를 통해 순정 제품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고, 둘째로 경제형 제품을 개발해 비순정 저가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

1. 버추얼 쇼룸(Virtual Showroom): 실제 오프라인 전시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제품 관람 및 정보 확인, 회사 홍보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 가능한 가상의 전시관
2. 브레이커(Breaker): 굴삭기에 장착하여 채석장과 같은 공사현장에서 암석과 콘크리트를 파쇄 하는 장비

니다. A/M영업팀은 이러한 두 가지 전략을 활용, 양분된 시장 모두를 공략함으로써 앞으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현대코어모션은 2024년 매출액 4억 달러, 수익률 30%라는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한 바 있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A/M영업팀도 고객에게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대코어모션 버추얼 쇼룸 방문하기
(https://hyundai-cmvr.com)

더 보기

현대코어모션 A/M영업팀에 물어봤습니다!

비순정 부품과 순정 부품간의 차이가 뭔가요?

순정 부품이 가격대는 더 높지만 비순정 부품 대비 제품의 사용 수명이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공식적으로 품질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는 부품은 무엇인가요?

전체 매출의 약 15~17%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필터입니다. 필터는 주요 부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불순물과 수분 제거에 사용됩니다. 엔진 오일 필터, 연료 필터, 리턴 필터, 라인 필터 등의 종류가 있습니다.

미국 마이애미 글로벌 물류센터의 건립으로 배송기간이 얼마나 단축되나요?

중남미 지역 기준 정기 주문은 기존 평균 1.5개월에서 2주 이내로, 긴급 주문은 기존 평균 4일에서 2일 이내로 배송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타사 장비와 호환되는 부품도 있나요?

표준 규격에 따라 범용생산되는 제품들은 타사 장비 부품과 호환이 가능합니다. 필터, 오일, 타이어, 배터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수십만 종의 부품을 관리하는 물류센터에서 주문된 재고를 찾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모든 부품들은 창고관리시스템(WMS)을 사용하여 전산관리 되고 있습니다. WMS는 제품의 입고에서부터 보관, 하역, 출하까지 창고 내부 프로세스의 원활한 물자 흐름과 정보교환을 관리하는 총체적 시스템입니다. WMS에 모든 부품의 지정된 위치가 저장되어 있고 작업자는 해당 위치를 확인해 입출고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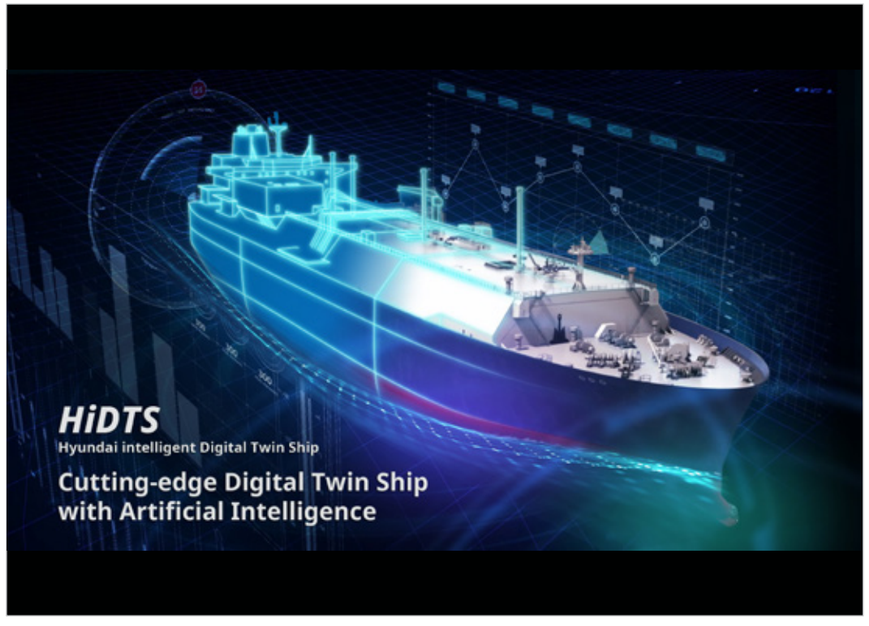
그룹사 주요 소식



현대중공업지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 본계약 체결

현대중공업지주와 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지난 2월 5일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했다.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은 지난해 9월 28일 두산인프라코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예비입찰에 참여한 이후, 12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 약 4개월간 인수 절차를 진행해왔다. 본 계약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지주 컨소시엄은 두산중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의 지분 34.97%를 인수한다. 현대중공업지주는 각 법인의 독립경영체제를 지원하고, R&D부문 강화 및 중복투자 조율 등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양사의 위치를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지주는 향후 국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중국 등 주요 국가에 기업결합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며, 3분기 내 인수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를 통해 현대중공업지주는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조선과 정유, 건설기계까지 국가 기간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그룹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게 됐다.



한국조선해양

세계 첫 가상시운전 기술 개발

한국조선해양이 디지털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선박에 접목하며 차세대 선박 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1월 25일 영국 로이드선급으로부터 세계 최초로 개발한 'LNG운반선의 가상시운전 솔루션'에 대해 기본승인(AIP)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솔루션은 한국조선해양의 디지털트윈 선박 플랫폼(HiDTS)을 이용, 가상의 사이버 공간에서 실제 선박의 해상 시운전 상황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 LNG운반선의 이중연료엔진, 연료공급시스템, 전력시스템 등과 같은 핵심 설비의 성능을 실제처럼 검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실제 시운전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극한의 조건에서도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해상에서 이뤄지는 시운전 기간을 대폭 줄여 비용을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이번 가상시운전 솔루션 개발을 시작으로 추후 △자산관리 △에너지 최적화 △위험 예지 등의 디지털트윈 솔루션도 순차적으로 개발해 자율운항 기반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중공업

IPO로 친환경 미래사업 투자

현대중공업이 저탄소 시대에 대비해 친환경 미래 사업에 1조 원을 투자한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1월 26일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친환경 및 미래 선박 개발, 건조기술 개발, 친환경 생산설비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최대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투자 자금은 비상장사인 현대중공업이 IPO(기업공개)를 통해 연내 약 20%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조달한다. 현대중공업은 현재 그룹 내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이번 투자를 통해 수소, 암모니아 등 저탄소 시대를 대비한 친환경 선박 및 미래 첨단 스마트십,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이중연료 추진선의 고도화에 나선다. 또, 연료전지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M&A나 지분 매입을 포함한 기술 투자 등을 함께 추진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와 시설투자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반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대건설기계

‘자율굴착기’ 시대 앞당긴다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2월 7일 반자율 작업이 가능한 첨단 제어기술인 머신컨트롤(Machine Control)을 적용한 첫 굴착기를 구매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번 출시는 국내에서 처음 머신컨트롤을 굴착기에 적용, 상용화하며 ‘자율굴착기’ 시대를 앞당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머신컨트롤 시스템은 스마트건설 분야의 핵심기술로, 현대건설기계는 관련 원천기술을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임으로써 늘어나는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게 됐다. 머신컨트롤 굴착기는 디지털 센서와 전자유압시스템 등을 통해 굴착기의 자세와 작업 지점 등을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알려주고, 평탄화 작업이나 관로 작업, 터파기 작업 등을 반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측량 인력 없이도 원하는 작업의 깊이나 기울기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땅의 높낮이를 파악해 작업을 수행한다. 이로 인해 작업 현장의 공기(工期) 단축과 비용절감 등 작업효율을 30% 이상 높일 수 있고 안전사고의 위험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오일뱅크

프리미엄 세차 시장 진출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2월 5일 프리미엄 세차 브랜드 '카샥샥'을 출시,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세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다. 카샥샥은 빠르고 깨끗한 세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로, 현대오일뱅크 기존 기계식 세차가 아닌 손 세차와 출장 세차 등 고급 세차 분야를 집중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국내 세차 시장 규모는 약 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현대오일뱅크는 중소 전문업체와 협력해 세차 사업에 나선다. 손 세차와 출장 세차 등 세차 서비스는 중소 전문업체가 수행하고, 현대오일뱅크는 2,500여 개의 주유소 플랫폼을 제공하고 멤버십을 통해 고객 유치 및 관리를 돕는 방식이다. 현대오일뱅크는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프리미엄 세차 사업을 확대하고, 렌터카 업체를 대상으로 전용 세차 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기업 간 거래(B2B) 시장도 적극적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 '기업인 명예의 전당' 헌액

현대중공업지주 권오갑 회장이 지난 2월 2일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대한민국 기업인 명예의 전당'에 전문경영인 최초로 헌액됐다. 한국경영학회는 1956년 창립된 우리나라 최대의 경영학 연구단체로, 매년 한국 경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기업인을 명예의 전당에 헌액하고 있다. 역대 선정된 기업인들로는 현대그룹 정주영 창업자,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 LG그룹 구인회 창업회장,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등이 있다. 1978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권오갑 회장은 2010년 현대오일뱅크 사장으로 부임해 과감한 투자 결정과 조직 문화 혁신, 소통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뛰어난 경영능력을 발휘했다. 2014년에는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및 그룹 기획실장으로 자리를 옮겨 고강도 개혁과 사업 재편 등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켰으며, 1% 나눔재단을 설립해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다.



아산사회복지재단

설 앞두고 아동복지시설 방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몽준 이사장이 지난 2월 9일 설을 앞두고 대전하나시티즌 허정무 이사장, 대한축구협회 김병지 부회장과 함께 서울 관악구 동명아동복지센터를 방문해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컴퓨터실과 세미나실 등을 밖에서 살펴본 뒤 축구공과 과일 등 선물을 전달, 아동들을 격려했다. 앞선 2020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동명아동복지센터 김연희 사무국장에게 아산상 복지실천상을 수여했다. 김 사무국장은 28년간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며 가족 해체로 위기에 놓인 아동들의 올바른 성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지난 1월 25일 기초 및 임상 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룬 의과학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제14회 아산의학상 수상자 4명을 선정, 총 7억 원의 상금을 수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주목할 만한 이달의 역사

국내 대표 스마트 에너지 기업 ‘현대일렉트릭’의 시작

1977.2

글 웹진편집실
공동기획 현대중공업 사내방송국 HHBS



Editor’s Note | 이번 2월호는 지난 1977년 중전기사업본부 발족 이후 40여 년간 전기전자 사업분야에서 구축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는 현대일렉트릭의 발자취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제작한 초고압 차단기

국내 대표 전력기업으로 우뚝 서기까지

현대일렉트릭은 발전에서 송·배전까지 전력이 필요한 모든 영역에 기자재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제품 라인업과 앞선 기술로 국내 전기전자기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1977년 2월 현대조선중공업(現현대중공업)이 '중전기사업본부'를 발족하면서 배전반 공장과 변압기 공장을 설립, 중전기기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던 것이 현대일렉트릭의 시작이다.

1978년 11월 중전기사업본부는 '현대중전기'로 독립했으며, 독일 지멘스, 미국 GE, 일본 미쓰비시 등 세계 유수 업체들과 적극적인 기술 제휴로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는 한편, 전기·전자기기의 국산화에 앞장서 왔다. 이후 기술연구소와 차단기 공장 등을 차례로 설립하며 빠르게 성장한 현대중전기는 고압 및 중전기기 신제품을 개발하고, 초고압 변압기를 비롯해 배전반, 회전기, 중저압 차단기, 선박용 전장품 등을 세계 시장에 공급하며 글로벌 전력기기 시장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력은 1985년 품질관리 대상, 1986년 5천만 달러 수출탑 수상 등 성과로 이어졌다.

현대중전기는 1994년 1월 다시 현대중공업 전기전자시스템 사업본부로 합병됐다. 그 후 터빈발전기 공장 준공(1996년), 초고압 차단기 공장 준공(2008년) 등 발전설비 분야 투자를 확대하고,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과 신제품 개발을 강화해 괄목할만한 실적을 거뒀다. 독립법인으로서 새롭게 출범한 2017년 이후에도 변압기 생산 누계 40만 MVA 달성, 전동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인 1,200만 달러 수주 등의 쾌거를 달성하며 성공적인 홀로서기를 이뤄냈다.

기술로 이뤄낸 '최초' '최고' '최대' 기록

현대일렉트릭은 다양한 최초, 최다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2010년 미국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인 SCE(Southern California Edison)사로부터 국내 변압기 수주 사상 최대인 6억 달러 규모의 대용량 초고압 변압기 공급계약을 따낸 것이다. 종전 국내 변압기 수출 최대 규모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수주한 2억 5,000만 달러로, 이 역시 현대일렉트릭이 세운 기록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1년에는 국내 최초로 765kV 극초고압 변압기의 상업 운전에 성공했으며, 2017년에는 고려아연으로부터 세계 최대 규모인 150MWh급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을 수주했다. 또한 지난해 10월부터 국내 최대 산단(産團)인 경기 반월·시화 산단에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에너지플랫폼을 구축하는데도 앞장서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다수의 세계일류상품 배출 기업이기도 하다. 세계일류상품은 우리나라의 수출을 이끄는 핵심 제품을 육성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선정하고 있다.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수출규모가 연간 500만 달러 이상인 상품 중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인 경우에 선정된다. 현대일렉트릭은 선박용 동기발전기(2004년), 대용량 전력용 변압기(2006년), 선박용 배전반(2007년), 선박용 고압 스러스트 전동기(2008년), 145kV 가스 절연 개폐기(2010년), 내압방폭형 전동기(2011년), 345kV 이상 분로 리액터(2012년) 등 총 7개의 세계일류상품을 보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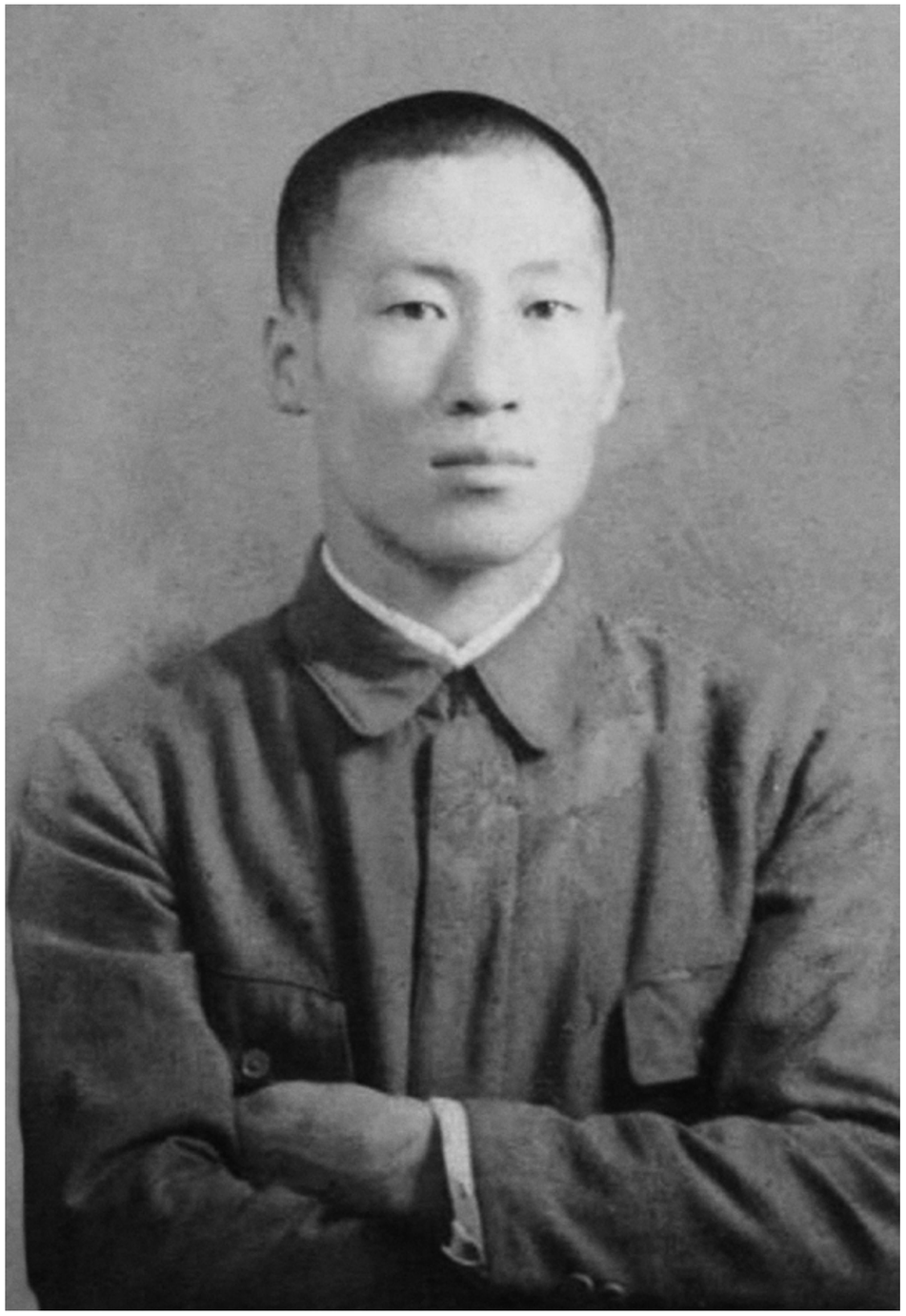
'오늘의 기술력'으로 '내일의 가능성'을 창조하다

현대일렉트릭은 2017년 4월 현대중공업으로부터 독립 출범했다. 점차 커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다. 최근 글로벌 전력 시장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은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을 보유한 송·변전 분야와 더불어 미래 먹거리로 평가받는 배전 및 솔루션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ICT 플랫폼 구축과 신뢰성센터 설립, 스마트팩토리 완공 등 디지털 기반 기업으로의 변신을 통해 차세대 시장을 이끌어갈 'Smart Solution Provider'로 거듭나고 있다.

현대일렉트릭이 걸어온 길은 국내 전력기기 제조업의 역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40여 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메이드 인 코리아'의 저력을 알려온 현대일렉트릭. 앞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과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고의 글로벌 스마트 솔루션 기업으로 나아갈 이들의 힘찬 발걸음을 기대해 본다.



▲현대일렉트릭 스마트팩토리 조감도



창업자 특집 - 제 2화

‘현대’의 태동, 그 집념과 도전의 역사

글 웹진편집실

Editor’s Note | ‘현대(現代)’의 역사는 정주영 창업자의 집념과 도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창업자의 집념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었으며,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한 그의 도전정신은 우리의 정신적 유산이 되어 새로운 도전을 향한 발걸음을 보다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매거진 H는 지난달부터 총 3부에 걸쳐 아산의 정신과 그가 강조한 삶의 가치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 달에는 지금의 현대를 있게 한 창업자의 집념과 도전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34년 복흥상회 주인과 함께한 창업자 정주영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 - 복흥상회 자전거 배달꾼

고향을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한 정주영 창업자는 막노동부터 엿 공장의 심부름꾼까지 고된 일을 두루 겪은 끝에 쌀가게인 복흥상회에 배달원으로 취직했다. 자전거로 쌀을 배달하면 하루 세끼 먹여주고 쌀 반 가마니를 월급으로 주는 안정된 직장이었다. 자전거 타는 방법을 몰랐지만, 어렵사리 구한 직장다운 직장이었기에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가 생전에 강조했던 ‘최선의 노력’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다.

最善

자전거에는 빼놓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 취직하던 날 주인아저씨가 자전거를 탈 줄 아느냐고 했다. 배달꾼을 쓰는 것이니 당연히 챙길 일이었다. 그리 잘 탄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타본 적은 있어서, 탈 줄 안다고 했다. 그런데 취직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주인아저씨가 쌀 한 가마와 팥 한 되를 왕십리 자기 집으로 배달하라고 했다. 공교롭게 비까지 질척질척 내리는 날이었다. ‘그럴 정도로 자전거를 잘 타지는 못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 그저 무턱대고 쌀 가마니와 팥 자루를 자전거에 비끄러매고 비틀비틀 나섰는데, 애초부터 무리한 짓이었다. 화원시장 근처에서 기어이 나동그라지고 말았다. 자전거 핸들은 확 휘어버리고 쌀 가마니, 팥 자루는 진창이 묻어 엉망이 되어 버렸다. 그때의 황당했던 심정을 떠올리면 지금도 얼굴이 화끈거린다. 그날 밤 선배 배달꾼을 졸라 자전거 쌀 배달의 기술과 요령을 배워서 내리 사흘 동안 거의 밤잠을 안자고 배달연습을 했다. 단순하기 짝이 없는 자전거 쌀 배달에도 공부해서 익혀야 할 게 몇 가지는 있었다. 사흘 밤을 새우면서 익힌 요령과 기술로 그 후 얼마 안 가 나는, 한꺼번에 쌀 두 가마를 싣고도 제비처럼 날쌘 최고의 배달꾼이 되었다. 나는 무슨 일이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 평생을 언제나 그 시절 자전거 쌀 배달꾼 연습 때처럼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으며 살아왔다. ‘요만큼’이나 ‘이만큼’이나 ‘요 정도’, ‘이 정도’는 내게 있을 수 없었다. ‘더 할래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最善).’ 이것이 내 인생을 엮어온 나의 기본이다.

- ‘이 땅에 태어나서’ 中 -

“빈대도 저토록 죽을힘을 다하는데...”
- 아도서비스 인수, 그리고 화재

정주영 창업자는 1940년 복흥상회 주인으로부터 인수해서 운영하던 쌀가게를 정리하고, 대출을 받아 ‘아도서비스’라는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했다. 그러나 공장을 연 지 갓 한 달이 되어갈 무렵, 화재가 발생해 공장은 물론 수리를 끝낸 손님의 자동차들까지 몽땅 타버리고 말았다. 빚더미 위에 빚이 얹어진 것이다. 게다가 공장 허가를 다시 받기도 쉽지 않았다. 포기하고 싶을 만도 했지만, 창업자는 이때 빈대로부터 얻은 교훈을 떠올렸다.



▲1949년 4월 1일 현대자동차공업사 사원들과 함께한 정주영 창업자(흰색 동그라미)

努力

언제나, 무슨 일에나 최선의 노력을 쏟아 부으면 성공 못할 일이 없다는 교훈을 내가 빈대한테서 배웠다고 하면, 과장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인천에서 막노동을 할 때 잠을 잤던 노동자 합숙소는 밤이면 들끓는 빈대로 잠을 잘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몇 사람이 빈대를 피하는 방법을 연구해서 밥상 위로 올라가 잤는데, 빈대는 밥상 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와 사람을 물었다. 우리는 다시 머리를 짜내어 밥상 네 다리에 물을 담은 양재기를 하나씩 고여놓고 잤다. 그런데 편안한 잠은 하룻가 이틀에서 끝나고 빈대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혔다. 상다리를 타고 기어오르다가는 몽땅 양재기 물에 빠져 죽었어야 하는 빈대들이었다. 그런 빈대들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살아서 우리를 다시 뜯어먹나 불을 켜고 살펴보다가 우리는 다 같이 아연할 수밖에 없었다. 밥상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게 불가능해진 빈대들이 벽을 타고 까맣게 천장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천장에서 사람 몸을 향해 툭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때 느꼈던 소름끼치는 놀라움을 잊을 수가 없다. 그리고 생각했다. ‘하물며 빈대도 목적을 위해서는 저토록 머리를 쓰고, 저토록 죽을힘을 다해 노력해 성공하지 않는가. 나는 빈대가 아닌 사람이다. 빈대한테서도 배울 건 배우자. 인간도 무슨 일에든 절대 중도 포기하지 않고 죽을힘을 다한 노력(努力)만 쏟아 붓는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 ‘이 땅에 태어나서’ 中 -

“된다는 확신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 현대건설의 출발

‘현대(現代)’라는 상호는 1946년 창업자가 운영하던 자동차 수리 공장에 ‘현대자동차공업사’ 간판을 달면서부터 시작됐다. 정주영 창업자는 ‘현대’를 통해 반드시 사업가로서 크게 성공해보겠다는 포부를 품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47년 현대자동차공업사 건물에 ‘현대토건사’ 간판을 더 달고 본격적으로 토건업에 진출했다. 현대의 도전이 다시 시작된 순간이었다.

▼ 1940년대 현대자동차공업사 직원들과 금강산 구룡연에 오른 창업자 정주영



確信

견적 넣고 수금하고 하면서 관청과 미군을 드나들던 어느 날, 건설업자들이 공사비를 받아가는 것을 보았다. 내가 받는 수금액은 한 번에 고작해야 30~40만 원 정도인데 건설업자들은 한 번에 1천만 원씩 받아가고 있었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다. 업종이 다를 뿐 들이는 노력은 같은데, 기왕이면 나도 큰 돈 받아내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논했더니, 친구 오인보도 매제 김영주도 결사 반대였다. 자본도 경험도 없이 무모한 짓 벌이지 말고 그냥 왕왕 잘 돌아가는 자동차 수리업이나 열심히 하자는 것이었다. 이 나이까지 사는 동안 나는 어떤 새로운 일에 도전할 때마다 무모하다는 말을 안듣고 시작한 일이 별로 없는데, 자동차 수리업을 하다가 토건업에 뛰어들면서 들었던 이 ‘무모하다’가 최초로 들었던 ’무모하다‘는 말이었다. 그러나 나는 전혀 무모하다는 생각이 안들었다. 토건업이 그렇게 생소하지도 않았다. 우선 토목 공사판에서 노동도 했었고 무엇보다도 당시의 토건업이래야 대부분 수리나 영선이 고작이었는데 ‘까짓 것, 견적 넣어 수리하고 돈 받기는 마찬가지지 뭘 그래?’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어떤 일을 시작하든 ‘반드시 된다’는 확신(確信) 90%에 ‘되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 10%로 완벽한 100%를 채우지, 안될 수도 있다는 회의나 불안은 단 1%도 끼워넣지 않는다. 나는 당장 초동 ‘현대자동차공업사’ 건물에 ‘현대토건사’ 간판을 더 달았다. ‘현대건설’의 출발이었다.

- ‘이 땅에 태어나서’ 中 -

창업자 기고문 전재

세상의 변화가 여전히 멋있다



Editor's Note | 세기말의 불안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가 공존하던 새천년의 첫날, 정주영 창업자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젊은이들에게 애정 어린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창업자의 글을 통해 시대의 변화 속 새로운 세상을 준비했던 아산의 마음가짐과 기업가 정신을 들여다 봅니다.

우선 나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다. 1915년 생이니까 내 나이 이제 여든다섯, 이 나이에 2000년의 태양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나는 행복하다. 더구나 나는 만년을 즐길 자격은 인정받을 정도로 저 어려웠던 젊은 시절부터 최근까지 한국경제에 일정한 자취를 남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뭐니 뭐니 해도 복 받은 사람들은 요즘의 젊은이들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미래의 시간을 갖고 있다는 것, 그것도 새천년의 초입에 그러한 기회가 왔다는 것은 커다란 복이다.

새천년의 출발에 맞춰 기자들은 있되 종이신문은 발행하지 않고 인터넷에만 기사가 떠 있는 '인터넷 신문'이 나오게 됐다니 반길 일이다. 나는 인터넷을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내가 시대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최근의 '인터넷 소용돌이'가 세상의 변화과정에서 커다란 전환점에 해당한다는 점을 평생 쌓아온 사업가적 안목으로 분명히 인식한다.

천부적인 사냥꾼은 큰 짐승이 다니는 길목을 알고 훌륭한 어부는 물고기 떼의 흐름을 잡아내듯이, 뛰어난 사업가라면 새천년의 화두를 인터넷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내 세대가 자랄 때 겪었던 절대적 궁핍의 위협 없이 요즘 젊은이들이 인터넷의 가능성 앞에서 땀을 쏟으며 노력을 경주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나도 덩달아 흐뭇하다.

난 경영인으로서 공장 말뚝을 직접 박아 보는 것을 매우 중시했다. 갖가지 어려움을 딛고 척박한 땅에 자기 공장의 말뚝을 직접 박으며 땀 흘려 공장을 지어볼 때 단순한 장사꾼을 탈피해 비로소 기업인이 된다고 나는 생각해왔다. 그래서 부단히 건설,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 등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공장을 지어왔다. 주변에서 제대로 안 될 것이라고 만류하거나 노골적으로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에도 이러한 신념에서 나는 일을 밀고 나갔다. 아직도 난 나의 판단을 소중히 여긴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란 대단한 것이다.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정보화 산업, 인터넷 산업이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이 산업은 전통적인 분류로 따질 때 공장 말뚝이 있는 산업이 아니다. 아니, 그러한 과거 잣대에 의한 분류가 무의미한 산업이다.

세상의 변화란 멋진 일이다. '공장을 직접 지어봐야 기업인이 된다'는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대 변화로 인해 그러한 생각을 젊은이들에게 꼭 강권할 뜻은 없다.

그러나 공장을 지어봐야 기업인으로서 사고와 행동의 호흡이 길어진다. 짧은 생각, 가벼운 행동을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기업을 하려는 사람이 호흡을 짧게 가져가서는 결코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최근 인터넷 사업에 뛰어든 젊은이들 중 일부가 일확천금을 꿈꾸며 '작전성 사업'을 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요즘 젊은이들은 시대 변화로 인해 진정한 기업인이 되기 위해 꼭 공장을 지어야 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스스로의 훈련을 통해 시골 황소와 같은 우직함을 몸에 익혀야 한다.

이 노인네가 평생 소중하게 여겨온 '공장말뚝론'을 새천년을 맞아 새롭게 할 테니 부디 젊은이들도 기업경영을 단기적으로 목돈 한번 챙기는 정도로 간주하는 습벽을 물리치라고 당부하고자 한다. 시대의 변화가 멋진 것이지만 거기에서 좋은 면들을 섭취해야지, 일시적으로 이용해 돈을 벌겠다고 하다간 오히려 그 변화에 스스로 먹히거나 매몰되고 만다. 괜한 말이 아니라 나는 그러한 예들을 과거에도 무수히 보아왔다. 엄청난 변화의 시기에 새로운 면모의 젊은 기업인들이 대거 탄생하길 바라며 이 말을 해둔다. 새천년에도 나와 같은 기업인이 또 나올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야 한국경제가 우뚝 선다.

- 머니투데이 발췌 -

※ 이 기고문은 고령이신 정주영 창업자님이 글의 주요 내용을 구술한 것을 토대로 비서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STORY

Trend

Health

Culture

Story +

Hstagram

Quiz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홈술 문화

글 심현희 | 서울신문 기자

직장인이라면 회식 자리에서 한국인의 시그니처 폭탄주인 소맥을 열심히 말다가 상사들의 회고를 듣게 되는 때가 종종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듣는 선배들의 '술 무용담'은 폭탄주를 언급하는 것에서 시작되곤 한다.

"옛날에는 텐텐(10-10)[1]으로 마셨어. 그것도 '양폭'으로."

[1] 텐텐주: 양주잔에 양주를 가득 따르고 그 잔이 담긴 맥주잔에 맥주를 가득 따라 만드는 폭탄주로 잔에 술을 '10부'까지 가득 채워서 만든다고 해서 텐텐주라고 불렸다.



때는 1998년 IMF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초고속 경제성장의 달콤한 과실을 누렸던 당시 직장인들의 회식 주종은 지금처럼 소주가 아니라 위스키였다. 주점에서는 임페리얼, 윈저 등의 국산 블렌딩 위스키가 불티나게 팔렸고, 고깃집에서도 고급 스카치위스키를 가져와 맥주에 섞어 원샷을 하는 게 풍토였다. 추억은 미화되기 마련이지만 맥주잔에 양폭을 가득 따라서 연거푸 들이켰던 그때 그 시절, 술자리가 고역이었던 이들에게는 다시는 돌아가기 싫은 과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이후 IMF 경제위기에 이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사회 분위기는 한껏 움츠러들었고, 과거 경제적 풍요의 상징이었던 사치스러운 '양폭'도 겸손한 '소맥'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저렴한 가격에 환상적인 목 넘김을 자랑하는 '소맥'은 어느새 국민 폭탄주로 등극했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주당 사이에선 'K칵테일'로도 알려지며 인기를 끌었다. 한반도 역사상 이렇게 가성비가 좋고, 빨리 취할 수 있는 술은 없었다. 소맥의 시대는 영원할 줄 알았다. 적어도 코로나19가 발발하기 전까지는.

코로나, '홈술'의 세계로 안내하다

"요새 누가 소맥 마시나요?"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처음 시작된 지 약 1년 2개월. 매일 아침 발표되는 전날의 확진자 수를 체크하고, 마스크를 쓰는 일상에 익숙해지는 기간 동안 세상이 뒤바뀌었다. 느닷없이 열린 새로운 시대에 무너지는 산업과 떠오르는 산업이 교차했다. 주류 시장도 코로나를 기점으로 큰 변화를 맞았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새로운 생활패턴에 따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술의 장르도, 소비하는 양상도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회식 문화가 사라지면서 소맥을 꼭 말아야 하는 자리가 급격하게 줄었다. 외출을 꺼리는 '집콕' 현상 속에서 '홈 파티'와 소모임이 활성화됐다. 고깃집, 횟집 등에서 가지는 단체 모임 등에서 거나하게 취해 택시에 실려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대신 친구, 가까운 지인의 집에서 삼삼오오 모여 오붓하게 한잔을 즐기거나 일찍 귀가해 가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반주를 곁들이는 사람들, 취침 전 넷플릭스를 보면서 간단하게 술 한잔을 음미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났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면 분위기와 상황이 주종을 정하는 법이다. 기존 회식 술자리에서 소맥의 목적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이 마시고 취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집에서, 가족이나 소수의 친구들과 혹은 혼자 술을 마신다면? 굳이 빨리 많이 마시고 취할 필요가 없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소맥은 갈 곳을 잃어버렸다. 사람들은 집에서 오붓하게, 자신의 취향에 따라, 적당량만 마셔도 만족감을 주는, 다채로운 맛을 지닌 술(와인)이나 외출하지 않아도 이커머스를 통해 살 수 있는 술(전통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와인, 전통주…코로나 시대의 승자가 되다

코로나 시대 주류 시장의 승자는 단연 와인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와인 수입량은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국내 와인 수입 물량이 최근 수년간 연평균 10% 안팎 증가해온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 유독 와인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진 것이다. 대형마트 1위 업체 이마트의 와인 매출도 사상 처음으로 1,000억 원을 돌파했다. 이마트가 판매한 4,900원짜리 칠레 와인 도스코파스는 200만 병 이상 팔렸다. 같은 기간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량(24만 3,197톤)과 점유율(54.9%)도 2008년 수입 개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008년 대비 약 50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스테이크를



가정에서 즐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스테이크 부위 판매량이 많이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을 미국육류수출협회 측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외식과 회식이 사라진 코로나 시대 집에서 고기를 구워 와인을 곁들이며 저녁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온라인 통신판매가 가능한 전통주 업계도 코로나 효과를 누렸다. 전자상거래 업체 11번가에 따르면 2020년 전통주 카테고리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8% 늘었다. G마켓에선 지난해 상반기 전통주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17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소비’와 외출을 꺼리는 집콕 현상이 ‘아는 사람들만 알았던’ 전통주의 매력을 널리 퍼뜨려 놓은 셈이다. 국내에선 모든 주류를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불법이지만, 전통주의 활성화 차원에서 2017년부터 무형문화재·식품명인이 빚은 전통술, 지역특산주 등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전통주를 다루는 오프라인 업장과의 거래량이 줄어든 양조장 입장에선 온라인 판매라는 돌파구 덕분에 불경기를 버텨낼 수 있었다.

홈술 시대 떠오르는 홈바 트렌드

홈술 문화는 곧 홈바의 유행으로 이어졌다. 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는 별도 공간인 ‘홈바’를 갖추는 것은 최근 인테리어의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다. 개그맨 박나래의 ‘나래바’처럼 다양한 종류의 술을 즐기고 칵테일까지 제조할 수 있는 홈바가 ‘홈술족’들의 로망이 됐기 때문이다. 홈바는 혼술·홈술족을 겨냥한 홈인테리어 시장을 키우며 잔, 거치대, 와인쿨러 등 관련 상품매출도 높였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040세대의 ‘홈바’ 관련 상품구매가 전년대비 대폭 상승했다. 와인을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게 하는 ‘와인쿨러’나 ‘버킷’은 판매율이 322%, 와인을 보기 좋게 보관하는 ‘와인랙’도 238% 올랐다. ‘와인 디켄터’도 11% 증가해 전체 와인용품 판매는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술 하나가 단순히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넘어 홈바, 홈아트, 홈인테리어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홈술, 트렌드가 아니라 어엿한 주류 문화

"다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말처럼 코로나를 기점으로 홈술은 더이상 트렌드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류 문화로 굳어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예전처럼 불필요한 회식 자리는 사라질 것이며 만취를 강요하는 술자리도 없을 것이다. 이미 집에서 맛있는 술을 음미하며 보내는 저녁 시간의 아늑함과 소중함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애주가들은 아마 오늘 저녁 집에서 와인을 한잔 따르며 코로나 이전의 과거를 회상할지도 모른다.

“내가 한때 소맥 20잔은 거뜬하게 마셨었지...”Ⓗ

드르렁~~컥, 방치하면 위험한 수면무호흡증

글 강현희 I 울산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그림 정민영 I 일러스트레이터



결혼 1년 차인 안 대리는 현재 아내랑 각방을 쓰고 있다. 문제는 안 대리의 코골이다. 처음에는 코를 가볍게 고는 정도였지만, 최근 업무 스트레스로 야근이 잦아지면서 더욱 심해졌다. 버티다 못한 아내가 결국은 각방 사용을 선언했다. 안 대리가 자는 동안 아내가 녹음해서 들려준 코 고는 소리는 크기도 하지만 중간중간 끊어지는 불규칙한 호흡 때문에 더 심각하게 느껴졌다. 어떻게든 치료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심각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의심해 봐야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기도가 좁아지고 이로 인해 반복적으로 기도가 막혀 호흡이 멈추거나 감소하는 질환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는 코골이를 동반한다. 코를 골다가 '컥'하는 소리와 함께 숨을 쉬지 않는 증상을 보이는데, 수면 중 호흡이 10초 이상 중단되는 현상이 시간당 5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 이를 병적으로 간주한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밤에 충분히 자고 일어났는데도 피곤한 경우에는 수면 중 무호흡이 있는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수면무호흡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비만이다.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상기도 안쪽에 살이 찌게 되면서 통로가 좁아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발생하거나 심해지게 된다. 또한 노화로 인해 상기도 근육의 탄력성이 떨어져도 무호흡으로 이어질 수 있고, 수면 시 바로 누운 자세에서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이 나타나거나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치료 안 하면 심혈관 질환 불러

수면무호흡증의 진단은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 검사는 보통 병원에서 하룻밤 동안 자면서 시행하며, 잠을 자는 동안 뇌파, 눈의 움직임, 근육의 움직임, 입과 코를 통한 공기의 흐름, 코골이, 혈압, 흉부와 복부의 호흡운동, 동맥혈 내 산소포화도, 심전도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동시에 환자의 수면 중 행동을 비디오로 기록한다. 그 기록을 판독하면 수면무호흡증을 비롯한 다양한 수면장애에 관한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다.

비만으로 인한 수면무호흡증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환자의 체중 조절이다. 그 외에도 옆으로 누워 자는 수면체위훈련이 도움이 되기도 한다. 중증도 이상의 수면무호흡증 환자에게는 양압기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양압기는 수면무호흡증을 교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치료 기구다. 양압기의 마스크를 코나 입에 착용하면 기도로 일정한 압력을 불어 넣어줌으로써 환자가 숨을 들이마실 때 기도가 열린 상태가 되도록 유지해 준다.

수면무호흡증을 가볍게 생각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며, 심각한 경우 갑작스러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보고된 연구에서는 수면무호흡증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수면무호흡증이 없는 환자에 비해 치료 경과가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전문가로부터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권한다.

수면무호흡증, 무엇이 궁금한가요?

#1

베개를 바꾸면 코골이에 도움이 될까요?



사람마다 머리 모양, 목의 길이, 목의 곡선 모양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베개의 높이를 정할 수는 없다. 베개를 선택할 때는 앞서 이야기한 요소들을 고려해 직접 누워서 체험해본 후 자신의 체형에 잘 맞으면서 편안하게 머리와 목을 잘 지지해주는 베개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2

스마트워치로 수면무호흡증인지 확인할 수는 없나요?



스마트워치 등 많은 최신 스마트 기기들이 수면의 질을 측정해 알려주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참고용으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면 병원을 방문하여 수면다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3

코골이에 아로마 테라피가 도움이 된다던데….



아로마 오일의 향기로운 냄새는 기분을 좋아지게 할 뿐만 아니라 코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의학저널 Phytotherapy Research에는 코골이 환자 82%가 취침 전 아로마 오일을 사용 후 증상이 호전되었다는 사실이 실리기도 했다. Ⓗ



요알못

K사우가 간다

바지락 술찜 편

글·사진 웹진편집실

레시피 제공 정주원 | 현대중공업 조선해양인사지원팀

Editor's Note | 우리 그룹의 모든 '요알못(요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표해 K사우가 나섰습니다. 올해 컬쳐 섹션은 임직원들이 보내준 레시피를 K사우가 직접 요리해보고 평가하는 코너로 채워집니다. 이달에는 칼칼한 맛으로 안주는 물론, 해장에도 좋은 바지락 술찜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밖에서 술 한잔하기 어려운 요즘. 직접 만든 안주와 함께 '홈술'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스파게티면과 함께 볶으면 한 끼 식사까지 해결이 가능한 바지락 술찜에 도전해보세요!



오늘의 재료(2인분 기준) | 바지락 700g, 버터 2스푼, 마늘 6~8알, 청주 1/2컵, 물 1컵, 페페론치노 5개, 청양고추 2개, 홍고추 4, 대파 2대, 스파게티면 200g, 후추, 소금, 파슬리



바지락 술찜



바지락을 해감해 준비한다. (바지락이 모두 잠길 정도로 물을 붓고, 소금을 한 스푼 넣어 호일로 덮은 뒤 2시간 정도 냉장고에 둔 뒤 흐르는 물에 씻는다.)



마늘, 대파, 고추를 얇게 쫑쫑 썬다.



중불에 올린 프라이팬에 버터 2스푼을 녹인 후 마늘을 볶는다.



마늘이 타지 않도록 주의해서 볶는다.



3에 바지락, 물, 청양고추, 페페론치노를 넣고 뚜껑을 닫은 채로 3분 가량 끓인다. (뚜껑은 덮지 않아도 된다.)



K사우의 pick! 청양고추 2개, 페페론치노 5개



바지락이 입을 벌렸는지 확인하고 술을 적당히 넣는다. (청주 대신 소주나 화이트와인을 써도 좋다.)



홍고추와 대파를 넣고 후추, 소금으로 간을 한 뒤 6분 더 끓여 바지락이 완전히 벌어지면 불을 끈다.



그릇으로 옮기고 파슬리가루를 뿌려 내면 바지락 술찜 완성!



스파게티면을 8분 정도 삶는다.



완성된 술찜에 익힌 스파게티면을 추가하고 면수 2국자를 함께 넣어 끓여준다.



바지락 파스타 완성!

K사우의 한줄평



맛 ★★★★☆

매운맛에 자꾸만 손이가요.

난이도 ★★☆☆☆

이제 칼질이 두렵지 않아요.

요알못을 위한 Tip

- 마트에서 해감된 바지락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 매운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은 고추의 양의 줄이세요.
- 버터를 많이 넣으면 느끼할 수 있어요.
- 간은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해야 짜지 않아요.

※ **유튜브 〈현대중공업TV〉 채널**에서 K사우가 요리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더 보기

사우의 글

내 인생의 영화관

글 임치연 | 현대글로벌서비스 KAM팀

졸업을 며칠 앞둔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서울 명동의 '중앙시네마'라는 영화관에 갔다. 영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우리가 본 영화에 대해 미주알고주알 이야기를 나누던 그 날의 기억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선명히 남아있다. 그날부터 내게 영화관은 훨씬 더 의미 있는 곳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단순히 시간을 죽이고 볼거리를 소비하는 곳이었다면, 이제는 가벼운 소회부터 심오한 감상에 이르는 다양한 감정의 스펙트럼을 만끽하고, 그것이 가져다준 감동을 토론을 통해 나눌 수 있는 나만의 놀이터가 된 것이다.

이후 나는 기대하던 영화가 개봉하는 날이면, 일부러 멀리까지 개봉관을 찾아가기도 하고, 큰 스크린이 있는 IMAX관에서 보기 위해 새벽부터 길을 나서기도 했다. 또 과거의 명작들이 리마스터링되거나 재개봉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잠자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짬을 내어 보러 갔다. 영화에 대한 관심이 진심으로 바뀔 무렵, 나는 영화는 반드시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영화관은 영화에 대한 더 강한 몰입을 제공해주는 것은 물론, 같은 영화를 보더라도 영화관에 따라 그 감상이 달라지게 하는 신비한 매력이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넷플릭스나 왓챠 등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고 있지만, 영화관이 그리운 건 분명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특별하고 신비로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다. 하루빨리 콜라와 팝콘을 손에 들고, 영화가 끝난 후의 적막과 엔딩크레딧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해본다.

Editor's Note | Story +는 사우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관련된 재미있는 정보를 모아 함께 읽어보는 코너입니다. 사우들 인생의 소소하지만 특별했던 경험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인생에 영향을 미친 ☐는 무엇인가요? 사람, 사건, 사물,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제목과 사연(500자 내외)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우에게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잡학사전

암흑 속, 예술의 빛으로 우리를 위로해주는 영화관

글 웹진편집실

#세계 최초의 상업영화 『기차의 도착』

세계 최초의 상업영화는 프랑스 뤼미에르 형제의 『라시오타역에 도착하는 기차』로, 보통 『기차의 도착』으로 불린다. 1895년 12월 28일 프랑스 파리의 그랑 카페에서 상영된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은 3분, 입장료는 1프랑이었다. 짧은 무성 영화였지만, 상영 당시 일부 관객들은 자신들을 향해 달려오는 증기기관차의 모습에 혼비백산해 영화관을 뛰쳐나갔다고 전해진다. 앞서 뤼미에르 형제는 최초의 영화촬영 카메라이자 영사(映寫)기인 '시네마토그라프'를 발명해 이 영화를 촬영했는데, 현재 영화를 뜻하는 영어 단어인 '시네마(cinema)'도 이 기계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다.

#가장 오래된 영화관 '에덴극장'

1889년 지어져 올해로 133살이 된 프랑스 에덴극장은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화관이다. 최초의 상업영화 『기차의 도착』이 상영된 곳은 아니지만,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영화관으로서 프랑스 독립 영화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다. 처음 지어질 때는 연극, 오페라부터 스포츠 경기까지 열리는 다목적 공간이었지만 1899년 첫 영화를 상영한 이후 현재까지 관객을 맞이하며 '세계 최고(最古)'라는 타이틀을 가진 영화관이 되었다. 한때 경영난으로 휴관과 재개관을 반복하기도 했지만 2013년 시설을 재정비한 뒤 독립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아트시네마로서 자리 잡았다.

#5센트로 즐기는 작은 영화관 '니켈로디언'

최초의 영화 상영 이후 영화 산업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북미 지역에서는 '니켈로디언(Nickelodeon)'이라는 소규모 영화관이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1905년 피츠버그에서 시작된 니켈로디언은 5센트 동전을 의미하는 '니켈(Nickel)'과 지하 극장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오데온(Odeon)'의 합성어로, 5센트 1개로 입장할 수 있는 극장을 뜻했다. 1910년경 미국에는 약 1만여 개의 니켈로디언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곳에서는 단편 영화들이 지속적으로 상영되었고 영화가 진행되는 20분~1시간 남짓의 시간 동안 줄곧 피아노 반주가 곁들여졌다고 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영화관 '광무대(光武臺)'

우리나라도 구한말부터 영화관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동대문 안에 있는 전기회사 창고에서 일요일과 비 오는 날을 제외하고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활동사진(영화)을 보여주고 있다. 활동사진은 대한과 구미 각국의 모습을 담은 것이다. 입장료는 동전 10전." 이 문구는 1903년 『황성신문』에 실린 광무대라는 극장의 광고 중 일부분이다. 광무대는 현재 서울 동대문 종합상가 자리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 영화관으로, 낮에는 소리패들의 공연을, 밤에는 서양의 '활동사진'을 상영했다. 광무대는 경술국치 이후 1913년에 폐관될 때까지 대중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다.

#밥 먹고 쇼핑하고 영화 보고, '멀티플렉스'로의 진화

2개 이상의 스크린을 가진 영화관을 '멀티플렉스'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최소 5개 이상의 상영관을 갖추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영화를 선택할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 영화관을 뜻한다. 멀티플렉스는 점점 진화해 영화관뿐 아니라 각종 상점, 음식점에 이어 백화점까지 연계돼 16개 이상의 대규모 상영관을 갖춘 거대 '메가플렉스'로 변신, 전국으로 확산됐다. 영화관이 밥 먹고 쇼핑하고 영화까지 볼 수 있는 '종합 문화 소비 공간'으로 변모한 것이다. 영화관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의자가 움직이고 바람이 부는 등 오감을 자극하는 4DX 영화관, 가상현실을 접목한 영화관 등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OTT로 휘청, 코로나로 털썩, 영화관의 미래는?

최근 영화관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위기의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국내 영화관 관객수는 5,952만여 명으로, 2억 명을 웃돌던 평년 대비 반의반 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지난해 멀티플렉스 수십 개가 폐관했고, 올해에도 휴·폐업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영화관은 관객에게 몰입감을 선사하는 큰 화면과 풍부한 사운드 등 OTT가 따라잡을 수 없는 독보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영화관들은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팬미팅, e스포츠, 클래식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활로를 모색 중이다. H

#Hstagram

눈온 풍경을 소개합니다

Editor's Note | Hstagram은 매달 주제를 정해 사우 여러분의 일상을 담은 사진을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2월호에는 사우들의 일상에 소복히 내린 눈 사진을 수록하였습니다. 3월호의 주제는 '유년시절'입니다. 사진과 함께 해시태그 키워드 3개를 보내주세요. 선정된 사우에게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현대중공업그룹사, 협력회사 사우 및 가족 참여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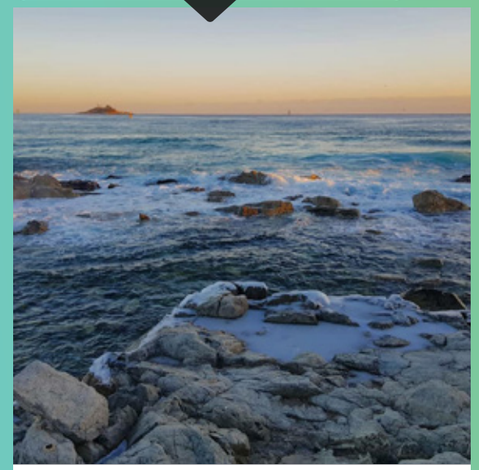



최승태 5급기사 I 현대중공업 특수선선체생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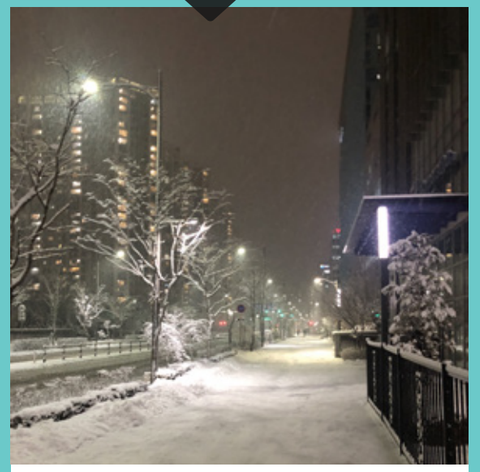
#하얀세상 #멋진설경
#와이프와함께


김상훈 과장 I 한국조선해양 대외협력팀

#눈내리는밤 #계동뒷골목
#북촌로에쌓이는낭만


강유정 사원 I 현대오일뱅크 경영분석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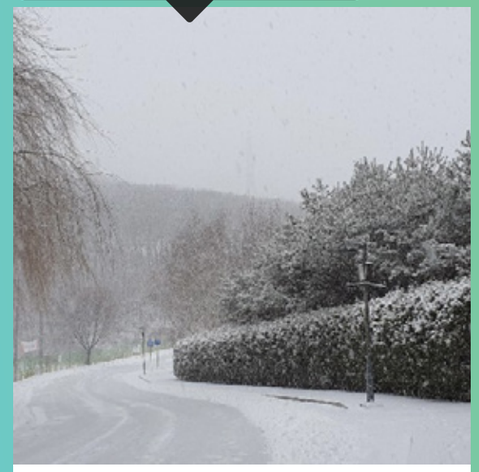
#눈이소복히내린 #겨울바다
#무릎시려 #코로나언제끝날까


문대일 사원 I 한국조선해양 경영지원팀

#눈오는서울야경
#야근후 #빙판길은언제나조심


이규동 기원 I 현대중공업 해양내업생산부

#추억의비료포대 #처갓집뒷산
#귀여운아이들


최문후 대리 I 현대건설기계 총무팀

#용인의멋진설경
#명지대 #학생들은우짜나



이번 호에 실린 글을 읽고 아래 퀴즈의 정답을 찾아 보내주세요.
정답을 모두 맞히신 분 중 추첨을 통해 상품을 드립니다.
소속 회사, 부서, 성함,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세요.

보내는 곳 - magazine@hhi.co.kr

기한: 2021년 2월 28일



갤럭시 버즈 라이브
(1명)



문화상품권
(10명)

1 ESG 중에서 노동조건, 산업안전과 보건, 공급망 및 소비자 관계 등과 연관된 부문은?

① 환경(Environment) ② 사회(Social) ③ 지배구조(Governance)

2 현대오일뱅크에서 올해 2월 5일 출시한 프리미엄 세차 브랜드 명은?

① 엑스티어 ② 카샥샥 ③ 카젠

3 현대(現代)라는 상호는 1946년 창업자가 운영하던 공장에 ( ) 간판을 달면서부터 시작되었다. ( ) 안에 들어갈 회사명은?

① 현대자동차공업사 ② 현대토건사 ③ 현대건설

1월호 퀴즈 정답 **1.** ① 환경(Environment) **2.** ③ 리바노스 **3.** ① 프루테리언

당첨자

갤럭시 버즈 라이브 (1명)

김형권 | 현대중공업 특수선체계통합설계부

문화상품권 (10명)

이혜지 | 현대일렉트릭 전력사업지원팀
이원우 | 현대중공업 인재개발팀
전형진 | 현대중공업 자산운영팀
이승규 | 현대중공업 엔진기계사업부
최창모 | 현대중공업 엔진기계경영기획부
정영은 | 현대중공업 특수선전무장설계부
오태만 | 에이치엔그룹 현중시스템운영팀
강가희 | 현대미포조선 자재지원부
정다희 | 한국조선해양 열시스템연구실
이정식 | 현대중공업 전장설계부



『이 땅에 태어나서』 독후감 대회 개최

아산사회복지재단이 내년 정주영 창업자의 20주기(周忌)를 맞아 기업가 정신이 담겨있는 자서전 『이 땅에 태어나서』의 독후감 대회를 개최한다.

진로와 취업, 창업 등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맞닥뜨릴 어려움을 지혜롭게 헤쳐 나갈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 열리는 이 독후감 대회는 중·고등학생부문과 대학생·대학원생, 일반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대상 1명에게 상금 1,000만 원, 금상 2명(각 부문별 1명), 은상 6명(각 부문별 3명), 동상 10명(각 부문별 5명), 장려상 30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에서 700만 원 등 총 49명에게 1억 1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를 읽고, 중·고등학생부문 참가자는 200자 원고지 15매(A4 3매) 내외, 대학생·대학원생, 일반부문 참가자는 200자 원고지 20매(A4 4매) 내외의 독후감을 작성해 아산사회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1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소설가, 문학평론가, 시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위원장 김수현 작가)의 예심과 본심을 거쳐 3월 수상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땅에 태어나서'는 전국의 중·고등학교·대학교 및 공공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으며, e-book은 인터넷 서점에서 1,000원에 구입해 읽을 수 있다. 정주영 창업자의 20주기는 내년 3월 21일이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매거진 H는 사우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룹 웹진입니다. 읽고 난 소감, 가장 마음에 들었던 기사 혹은 아쉬웠던 점, 소개하고 싶은 재미있는 사연이나 주목할 만한 인물이 있다면 적극 추천해주세요. 보내실 때 소속과 성함을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magazine@hhi.co.kr

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www.hyundai-holdings.co.kr

Copyright©Hyundai Heavy Industries Group All Rights Reserved